

사정당 무관하다 할당권인 올림픽으로 상선로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동 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동
- (명동 동광동 IC) 영수순 100000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형상제 실시
- 예약 : www.hpdyunashy.co.kr 0801 320-7700



한국의 박성현이 14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장 위엔위엔이 앞서 가자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다. 박성현과 윤옥희는 이날 은메달과 동메달을 땀다. /연합뉴스

中 텃세에... 빛나간 '태극 명궁'



양궁

박성현, 1점차 분패 아쉬운 '은'
윤옥희, 北 권은실 꺾고 동메달
곡성출신 주현정 8강전서 패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한국 양궁이 베이징에서 무너졌다. 2관왕 2연패에 도전했던 박성현(25·전북도청)은 14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 양궁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장 위엔위엔에게 109-110(120점 만점)으로 저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은 1984년 LA대회부터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연패 위업이 '6'에서 제동이 걸렸다. 준결승전에 패배한 윤옥희(23·예천군청)는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

었다. 윤옥희는 이날 베이징 올림픽 그린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양궁 개인전 3, 4위전에서 권은실(북한)을 109-106(120점 만점)으로 꺾었다. 4엔드에 걸쳐 3발씩 12발을 쏘는 승부에서 윤옥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엔드부터 28-27로 앞서간 끝에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한편 한국 여자단체전 3총사로 개인전에서 기대를 모았던 곡성출신 주현정(26·광주체육고 졸업)은 개인 4강 앞에서 주저앉았다.

주현정은 14일 베이징올림픽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양궁 개인 8강전에서 이번 대회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의 장 위엔위엔을 만나 101-106으로 패해 아쉬운 눈물을 흘렸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 속에 사선에 선 주현정은 첫발을 7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반면 장 위엔위엔은 과녁 중앙을 명중시키며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두 번째 화살에서 나란히 6점을 주고 받은 두 선수는 23-25로 1엔드를 마감했으나, 2엔드 들어 주현정이 또다시 6점을 기록하며 점수는 5점 차까지 벌어졌다. 세계랭킹 3위 나탈리아 발리바(이탈리아)와 세계랭킹 7위 베렌지아 슈(프랑스)를 연파하며 8강까지 올랐던 주현정은 결국 약전 후와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적인 야유 '이중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101-106으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잡이 윤경신 '펼펼'...8강 보인다



핸드볼

한국, 아이슬란드에 1점차 승...2연승

남자핸드볼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아이슬란드를 꺾고 2연승, 8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김태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낮 베이징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와의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핸드볼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22-21, 1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10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팀 독일과 1차전에서 27-23, 4점 차로 패한 뒤 12일 유럽선수권대회 챔피언 덴마크를 31-30으로 아슬아슬하게 잡았던 한국은 이로써 2승째를 챙기며 조별리그 통과에 한 걸음 다가섰다. 16일 이집트, 18일 러시아와 두 차례 경

기를 남겨 놓은 한국은 1승만 더 챙겨도 무난히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백원철과 이재우(이상 다이도스틸)가 잇따라 유도한 7m 던지기기를 조지호(바빙겐)가 모두 성공시키며 2-0으로 앞서갔다. 전반 10분께 3-5로 역전당하기도 했지만 수문장 한경태(오트마)의 빛나는 선방 속에 고경수(하나은행)와 정수영(코로사), 조지호(바빙겐)의 외곽포가 연거푸 작렬하며 다시 6-5로 앞섰다. 10-9로 1점 앞선 채 후반을 맞은 한국은 백원철, 정수영의 연속 골로 12-9, 3점 차까지 달아났지만 아이슬란드 레프트백 로기 게이르손을 막지 못해 다시 12-11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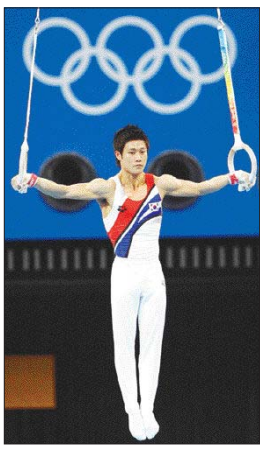
한국이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은 것은 후반 6분부터였다. 이재우가 아이슬란드 수비벽을 돌파해 골그물을 흔든 것을 시작으로 정수영의 속공과 백원철의 외곽포가 터져 금세 16-12로 4점을 도망갔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 출신인 윤경신(두산)의 득점포가 불을 뿜었다. 이번 대회 들어 좀처럼 골잡이를 찾지 못했던 윤경신은 후반 12분과 13분, 16분에 연달아 외곽포를 네트에 꽂으며 펼 펼 날았다. 후반 16분 윤경신의 9m 짜리 중거리포가 터져 한국은 19-14, 5점 차까지 달아날 수 있었다. 2-3점 차로 앞서가던 한국은 막판에 위기에 몰렸다. 경기 종료 1분20초 남기고 1점 차까지 쫓겼고 정수영의 외곽포가 불발되며 35초 전에는 공격권까지 내줬다. 아이슬란드는 골키퍼까지 필드플레이어로 교체하며 동점을 노렸지만 마지막 회심의 슈팅이 골대에 맞으며 승리는 한국에 돌아갔다.

양태영·김대은 메달 획득 실패



체조

한국 체조의 간판 양태영(28·포스코건설)과 김대은(24·전남도청·사진)이 베이징올림픽 남자 개인종합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양태영은 14일 베이징 국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결선에서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종목 합계 91.600점을 획득, 전체 24명 중 8위에 올랐다. 예선을 3위로 통과해 기대를 모았던 김대은은 안마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해 90.775점으로 11위에 머물렀다. 김대은과 양태영은 2004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태영이 스타트점수를 잘못 매긴 오실 탓에 폴 햄(26·미국)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던 문제의 종목이다. 이를 전 단체전 결선에서 허리가 아파 힘을 주지 못하면서 착지에서 실수를 연발. 대표팀을 메달권으로 이끌지 못했던 양태영은 이날은 4년 전 악몽을 꼭 떨쳐내겠다는 듯 초반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메달 가능성을



그쳐 양웨이(중국)에 이어 2위로 밀린 양태영은 마루운동에서 15.225점으로 선전, 은메달이 가능했으나 마지막 안마에서 14.300점에 그쳐 메달권에서 멀어졌다. 양태영은 예선 안마에서 15.000점을 받았던데 아쉬움은 더욱 컸다. 은메달을 딴 우치무라 고헤이(일본·91.975점)와 격차는 불과 0.4점이 안 됐다. 한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 종목을 2연패 한 중국 체조황제 양웨이는 94.575점으로 우승, 단체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한국 중국 야구 서스펜디드



야구

미국과 예선 첫 경기에서 8-7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한껏 고무됐던 베이징 올림픽 야구대표팀의 분위기가 비 때문에 짝이 빠졌다. 14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맞붙은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 풀리그 2차전은 6회말 한국 공격 때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서스펜디드 경기가 선언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추후 예비일을 골라 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지만 한국으로서는 이례적재 손해를 보게 됐다. 한국으로서는 비가 오히려도 경기를 계속해 중국과 경기를 확실하게 끝낸 뒤 15일로 예정됐던 캐나다전을 준비하는 게 유리한 입장이었다. 상대가 약체 중국인 만큼 경기를 계속하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비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하루를 경기장에 더 나와야 해 10일 가량 벌어지는 단기전에서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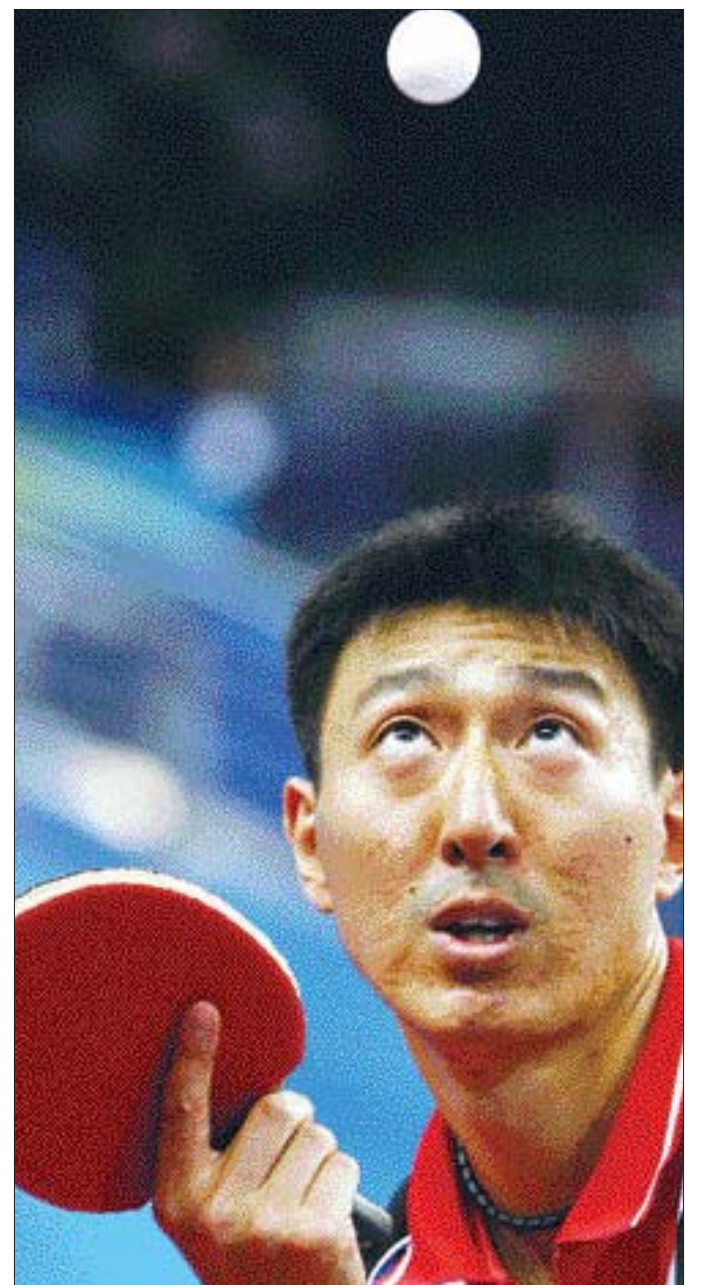
'말형' 오상은 구세주

대만전 단·복식 맹활약...3-1 역전승 거인



탁구

한국 남자탁구가 '복병' 대만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메달 사상 목표에 8부 능선을 넘었다. 한국은 14일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단체전 C조 예선 3차전에서 유승민(삼성생명)과 오상은(KT&G), 윤재영(상무)을 앞세워 대만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톱시드인 A조 1위 중국이나 B조 1위 독일과 결승 진출을 다룬다. 스웨덴, 브라질을 연파한 한국은 1단식에 간판 유승민을 세웠지만 출발은 좋지 않았다. 유승민은 대만의 에이스 쉐취위안과 외나무 다리 대결에서 강력한 포어핸드 드라이브를 작렬하며 첫 세트를 11-5로 여유있게 따냈다. 그러나 유승민은 짧으면서 회전량 많은 쉐취위안의 서브에 고전해 2, 3세트를 잃었다. 유승민은 세트 스코어 1-2로 몰린 4세트 7-10으로 끌려가다 3구 공격이 살아나 듀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소게임이 이어지던 17-17에서 2구 공격이 네트에 걸린 데다 통렐리 끝에 상대의 강한 스매싱이 대각선 구석에 꽂혀 첫 게임을 내쳤다. 기선 제압에 실패한 한국의 구세주는 '말형' 오상이었다. 지난해 11월 어깨 수술을 받았던 오른손 셰이크랜드 오상은은 특유의 빠른 공격으로 2단식 상대 장평룡을 3-1(11-2 11-8 8-11 11-5)로 일축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오상은은 이어 윤재영과 호흡을 맞춘 3복식에서도 베테랑의 노련함을 발휘했다. 1세트를 내준 오-윤 조는 오상은의 예리한 포어핸드와 윤재영의 왼손 백핸드 드라이브가 조화를 이뤄 2, 3세트를 따냈고 4세트를 잃었지만 5세트 듀스 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4단식에 나선 유승민은 장연수에게 세트 스코어 1-2로 뒤진 4세트 3-6으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지만 내리 5점을 쓸어담는 뒷심으로 승부를 최종 5세트로 몰고간 뒤 여세를 몰아 결국 11-9로 이겨 한국의 4강행을 확정했다.



14일 베이징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남자 탁구 단체전 한국과 대만 C조 1위 결선전에서 오상은이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